

# “독도망언 이번엔 뿌리뽑자”

### “독도는 우리땅”... 30년간 독도연구 불자 이종학 씨

“옛날지도들 보면 우리나라 동해가 조선해(朝鮮海)로 표기된 것이 많습디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조선해(朝鮮海)로 분명하게 표기된 것이 많디는게 중요하겠지요.”

30년간 독도관련 자료 3백여 점을 모으며 독도를 연구해 온 이종학(70세)씨는 왜 지금 다시 독도 영유권이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그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독도가 본래 자기네 땅이란 주장과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을 국제법상의 요식행위를 거쳐서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했다'는 근거는 스스로의 모순에 싸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씨는 율령군이 내놓은 1만 여평의 땅(울릉도 도동)에 삼성문화재단이 건립, 올 12월에 개관할 독도자료관에 현재까

며 사업을 하다가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씨는 수원시내의 한 사찰에 다니는 불자다.

“부처님도 재세시에 물때문에 분장을 하는 종족들을 슬기롭게 화해시켰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불교국가나 다름없는 일본이 끈질기게 독도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씨는 최근 새삼스레 불겨져 나온 독도문제와 관련 우리



30년간 독도관련 자료 3백여점을 모은 불자 이종학씨가 옛날 지도를 펴보이며 “독도는 우리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어로 표기하는가 하면 장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독도는 우리땅임을 확

고히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일본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맞서기만하는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무기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윤호 기자

## 일본 옛지도 ‘조선해 표기’ 잘 나타나 논문등 3백점 모아 독도자료관 기증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0여년간 일본을 50여 차례나 다녀왔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인 스스로의 역사에서 독도는 우리땅임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이씨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산 옛날지도 외에도 다양한 논문과 문서들을 입수했다.

지 수집한 독도관련 자료를 기증할 계획이다. 기증할 3백여 점의 자료에는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힌 논문과 기사, 잡지는 물론 일본인들이 일본땅임을 내세운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경기도 화성군 죽암 출신이

나라의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따갑게 지적했다.

“이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일본은 그간 꾸준히 독도에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대외적으로도 은근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근대 이후 제작되는 지도에 동해를

## 군산 교직원불자회 23일 창립 지역청소년 불심함양 앞장

군산지역교직원불자회는 오는 2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청소년들의 불심함양을 위해 출범하는 교직원불자회는 지난 달 15일 화엄불교대학에서 제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회칙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포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논의했다.

교직원불자회 창립준비작업을 해 온 김중하교사(금산상고)는 “군산 지역에 교사불자들의 수는 약 2여백여명에 달한다”며 “일선교사들이 확연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군산 지역 청소년 포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등한 포교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란이총 한국 재검토” 3군 군승단 문제제기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이 최근 일본 이흥보존회(회장 후지이 데쓰오시)와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는 임란이총(耳塚) 환국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승단은 “일본의 이흥환국 추진은 자신의 침략사에 대한 회과를 오도하고 은폐하여 세계평화국가를 발돋움하려는 사전포석적인 고도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침략상과 죄악상을 역사적으로 영원히 증거할 수 있는 이흥을 우리나라로 봉환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에게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설명하고, “단단에서는 ‘이흥환국’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의 행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박선영(35, 부산 사상구 학장동, 법명 宣晝)씨에게는 한 달음에 올라가야 할 2층 높이의 계단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져 숨이 턱에 까지 찬다. 부산불교교육원에서 매일 하는 108배 참회 기도도 이제 갈수록 힘에 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장이식의외에 더이상 뾰족한 치료책이 없다. 선영씨가 신장의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 85년, 누나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았던 때라 삶에 대한 열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선영사

석과 주 1~2회의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정수기 영업사원으로 치료를 충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것도 죄스러워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선영씨는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하모니카가 아닌 색소폰으로 찬불가를 멋드러지게 불러보고 싶단다.(혈액형 B형) (051-327-6067)

### 만성신부전증 앓고 있는 박선영씨

### “신장반아 새로 태어나고파요”

청년회장직을 맡아 불교활동도 열심히 하던 때였다.

현재 방광의 기능이 완전 상실돼 소변을 거의 볼 수 없는 박씨는 하루 5회 케리롤(노폐물을 걸러내는 약물) 투

## “사찰환경운동으로 지역공동체 이룩”

### 불교환경교육원 그린플랜21 발표... 조계종 환경위 추진

사찰환경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특수를 살려내는 환경운동이 펼쳐진다. 불교환경교육원이 최근 이같은 사업을 조계종 총무원에 제안하면서 조계종이 금년내도 환경위원회를 발족키로 하는 등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원 제안서에 따르면 △불교그린플랜 21 발표 및 환경실천위 발대식 △지역사찰 주지스님 환경교육 △불자환경수행청구 및 스티커제작 배포 △환경 퀴즈삼 및 수련회 △본사급 사찰사찰 지정운영 △각 참가단체들간의 연대방향모색 △토론회 개최 등이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1차적으로 6월1일 불자환경지침서를 발간한 뒤 2개월간 걸쳐 각본사 및 주지스님 1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는 환경청규를 담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단위사찰과 신도조직

을 통해 배포한다는 것. 또 ‘환경플랜 21’ 계획발표와 환경실천위원회의 발대식을 거행하며 지난해부터 지역환경위원회를 발족한 지사사를 시범사찰로 운영함으로써 가치관과 생활양식변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의 노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5개년 환경플랜인 △실천주체결성 △실천주체후원 △실천주체실천방향 △실천주체시범사찰운영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 인도 대한사 봉불

(주지 성관)는 지난 19일 2천여평의 대지에 기공식 및 봉불식을 가졌다. 범룡스님(봉양사 주지)을 비롯해 현지 기관장 불자 주빈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처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의 한국사찰 대한사(주지 성관)는 지난 19일 2천여평의 대지에 기공식 및 봉불식을 가졌다. 범룡스님(봉양사 주지)을 비롯해 현지 기관장 불자 주빈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 여야 정책위의장 초청간담회

### 조계종 중회, 내달 7-9일 통도사 연수회

4·11총선을 앞두고 김중호(신한국당) 손세일(국민회의) 서경석(민주당) 박구일(자민련) 등 4당의 정책위의장이 조계종 중회의원스님들에게 각각 당의 종교관련 기본정책을 알

아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책위의장들에게 전사법, 종도세, 국립공원을 리법등 대정부관련 불교계 현안 문제를 설명, 각당의 정책결정에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이다.

종회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월하 정종스님을 비롯해 월주 원산 성타스님 등 3원장과 중회의원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

전국신도회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조기헌회장의 임기를 임기만료일인 4월 17일까지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전신회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기헌회장 체제로 조직활성화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전국신도회는 △4월 17일 대의원총회에서 새집행부 구성 △중양신도회 참립준비위에 참여한 회원들의 제적 △전신회 활성화대책위원회에 의결 및 집행권을 위임키로 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조기헌회장을 비롯해 김양수 정치특목복지부장 관대장대전지부장 이민영안양지 회장 임신교성남지회장 배주용 서울대의원 이진호서울대의원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한편 전불련 대불련대불련총문회 등은 14일 일제히 성명을 내어 “조기헌씨가 과거의 매물행위를 참회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맑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보세요!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 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 당뇨

## 병이 아니다

# 清糖元

(보건복지부허가 제 131-35호)

- FDA(미국식품의약국) 승인식품 (NETIX 60400)
- 일본 특허획득(No 5-278867)
- 일본 (주)우엘사 수출
- 한국특허출원(No 14055호) (혈당강화조성물 : 물질특허)

\*공휴일도 접수 직접배달

전국문의 (주)세원 代 02) 516-575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3 3층

# 당뇨

## 혈당측정기

### 10만원대 존슨&존슨

당뇨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여 정상적인 수치로 조절하는 철저한 자기관리만이 건강한 생활과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60여개 병원

▶ 주·야 공휴일도 접수  
특별공급가 ₩165,000 ▶대리점 모집중  
전국 어디나 직접 배달합니다.  
代 02) 516-6804